

100년 신문 광주일보... 지역을 품고 미래를 연다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에서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까지 11개 해상 교량으로 연결되는 '섬섬백리길' 중 조발대교다. 멀리 고흥 영남면 팔영대교에 이어진 적금대교, 낭도대교, 둔병대교 등도 한 눈에 들어온다. 총연장은 39km으로 현재 7개의 교량은 이미 운행 중이고, 나머지 4개 교량도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일보는 수도권, 영남권 등 타 지역보다 호남의 발전이 더딘 이유를 이 같은 교량, 도로, 항만, 공항 등 기본적인 국가기반시설의 미흡에서 찾고 있다. 광주일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라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와 함께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은 호남의 역사 ... 지역의 성장·발전 뒷받침 지자체·대학·공기업·금융기관 등과 지역민 삶 향상에 힘써

1952년 창간한 광주일보는 72년간 불변부담한 정론을 펴며 문화 창달의 기수이자 지역개발의 선봉에 자리하고 있다.

호남 유일 정론지로 지역의 성장·발전, 지역민과 향우들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유도 하면서 건설적인 비판과 함께 모범 사례의 발굴, 해결 대안 모색 등을 통해 호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광주일보는 광주·전남의 지방자치단체들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대학 및 교육 연구·의료기관, 금융기관 등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성장해왔다.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이들과 상호 의견을 나누며 협력하고, 때로는 날선 지적을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해 온 것이다.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호남은 절대적으로 부족

한 SOC(사회간접자본), 열악한 산업기반, 부족한 일자리, 젊은 인구 유출 등으로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 성장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호남은 경제 논리에 밀려 언제나 정부 재정 투입 및 민간 투자에서 뒷전이였기 때문이다. 타 지역에 비해 발전의 속도는 더디고, 경제 성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일보는 정부와 정치권 등에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끊임없이 재촉하고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지자체, 대학, 공기업, 민간 기업 등과 연계의 폭을 넓히고 우리 지역의 요구를 더욱 강화하고 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이들 지자체·기관·대학·단체·기업 등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발전해나갈 것이다.

광주일보 창간 72주년 ...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강진군

고흥군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전남개발공사
전남바이오진흥원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주택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광주은행
보해양조
금호타이어
동행재활요양병원
마세라티